

학교의 트랜스젠더¹⁾ 관련 대응상황 실태 조사

문부과학성

2014년 6월 13일

1. 조사개요

1) 목적

학교의 트랜스젠더 관련 대응의 현황 파악을 실시해서, 전체적인 상황 및 배려의 구체적 내용 등, 학교 내 트랜스젠더에 대한 대응을 충실히 하기 위한 정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학교

국공립 및 사립 초등, 중등, 고등학교 (특구 제도에 의해 주식회사에서 설립한 초, 중, 고교 포함) 및 특별지원학교 (유치부 제외)

※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등을 통해 조사

3) 조사기간

2013년 4월 ~ 12월

4) 트랜스젠더에 대한 교육 상담 등에 대해

a) 본 조사에서 대상으로 하는 [트랜스젠더 관련 교육 상담 등]은 학생 본인이 성별위화감을 갖고 또한 학생 본인 및 보호자가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학생 본인의 자기인식을 학교 교직원에게 알린]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 생활상의 배려를 요구한 경우를 포함) 경우를 말한다.

b) 본 조사에서 위 a)이외의 경우에 학교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트랜스젠더로 취급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할 것

c) [성동일성장장애자의 특별 취급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성동일성장장애자(트랜스젠더)]의 정의는 아래 참고 내용대로이지만 본 조사에서는 의사의 진단 유무와 무관하게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인식에 따라 판단하였다.

d) 상담자인 학생 본인 및 그 보호자의 심리상태 존중을 최우선으로 하여 상담자가 본 조사에 대해 응답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1) 본문의 성동일성장장애는 성주체성장장애, 성동일성장장애자는 트랜스젠더로 번역. 법률상의 용어는 본문대로 표기

보고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e) 학교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 교육 상담 등의 사례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새롭게 학생 및보호자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

(참고) [성동일성장애자(트랜스젠더)]의 정의

이 법률에서의 [성동일성장애자]는 생물학적으로는 성별이 분명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이와 다른 성별이라는 지속적인 확신을 갖고 또한 자신을 신체적 및 사회적으로 다른 성별에 적합하게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와 관련해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갖춘 2인 이상의 의사가 일반적인 의학적 견지에 의해 내린 진단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성동일성장애자의 취급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2조

5) 조사항목

[A. 필수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항목]

호적상의 성별, 학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 여부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구체적 항목)

[B. 가능한 범위에서 임의응답을 요구한 항목]

의료기관의 진료 유무, 성주체성장애 진단 유무, 다른 학생이나 보호자에 대한 대처(숨기고 있는지 여부), 학교의 정책, 현황, 과제 등

2. 결과개요

1) 보고 건수

합계 606건 (호적상 남, 여 모두 포함)

※ 본 조사에서는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응답을 요구하지 않음에도 학교가 파악하고 있는 사례를 임의로 응답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위 숫자가 반드시 학교 내 트랜스젠더 또는 그렇게 생각되는 학생의 실제 숫자를 반영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2) 호적상의 성별

- a) 남 : 39.1% (237건)
- b) 여 : 60.4% (366건)
- c) 무응답 : 0.5% (3건)

3) 학제

- a) 초등학교 저학년 : 4.3% (26건)
- b) 초등학교 중학년 : 4.5% (27건)
- c) 초등학교 고학년 : 6.6% (40건)

d) 중학교 : 18.2% (110건)

e) 고등학교 : 66.5% (403건)

4)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 여부 (하고 있다면 그 구체적 항목) (복수응답 가능)

항 목	응답 사례
복장 (교복 있음)	- 자신이 원하는 성별의 교복 착용 인정 - 체육복 등교 허용
복장 (교복 없음)	- 치마를 입고 등교하고 있지만 본인의 의사 존중 (초등학교 고학년, 호적상 남)
두발	- 남학생의 표준적인 머리보다도 긴 머리를 청결함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고등학교, 호적상 남)
학용품	- 명찰 등에서 남녀의 색깔 구분을 가능한 피함 - 자신이 원하는 성별의 슬리퍼 착용 허용
탈의실	- 양호실 이용 허용 - 다목적 화장실을 탈의실로서 이용할 수 있게 함
화장실	- 교직원 화장실, 다목적 화장실 이용 허용
별칭 (본명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이름)사용	- 교내 문서를 별칭으로 통일함 - 공식행사에서 별칭으로 부름
수업 (체육이나 보건의육)	- 자신이 원하는 성별 그룹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함 - 본인만을 위한 별도 교육과정을 만들어줌
수영 수업	- 상반신을 가리는 수영복 착용 허용 (호적상 남) - 보충 수업 등으로 다른날에 실시 - 레포트 제출로 대체
수업 (체육, 보건의육 이외)	- 학생부 상 본인이 원하는 성별로 대우함 - 남녀 혼합 그룹을 만들어 발언하기 쉬운 환경을 만듦
운동 동아리 활동	- 본인이 원하는 성별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함
합숙연수 (수학여행 포함)	- 1인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함 - 목욕시간을 따로 줌
다른 학생에 설명	- 입학직후에 본인 및 담임이 전교생에게 설명함 -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알리지 않음
보호자, 학부모 모임에 설명	- 입학시에 학부모 모임에서 설명 -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알리지 않음
그 외	- 모든 학생을 [~상(씨)]라는 호칭으로 통일 - 내과 검진을 따로 실시함

[A. 필수 응답을 요구한 항목]

1) 전체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 사례는 약 60%, 배려 없음은 약 40%였다.

배려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묻지 않았지만 학생 본인이 특별한 배려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해 굳이 배려하지 않는 경우도 비교적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

	배려 있음	배려 없음	무응답	응답수
전체(호적상 남녀 모두)	62.2%	37.6%	0.2%	606
전체(호적상 남)	56.1%	43.9%	0.0%	237
전체(호적상 여)	66.4%	33.3%	0.3%	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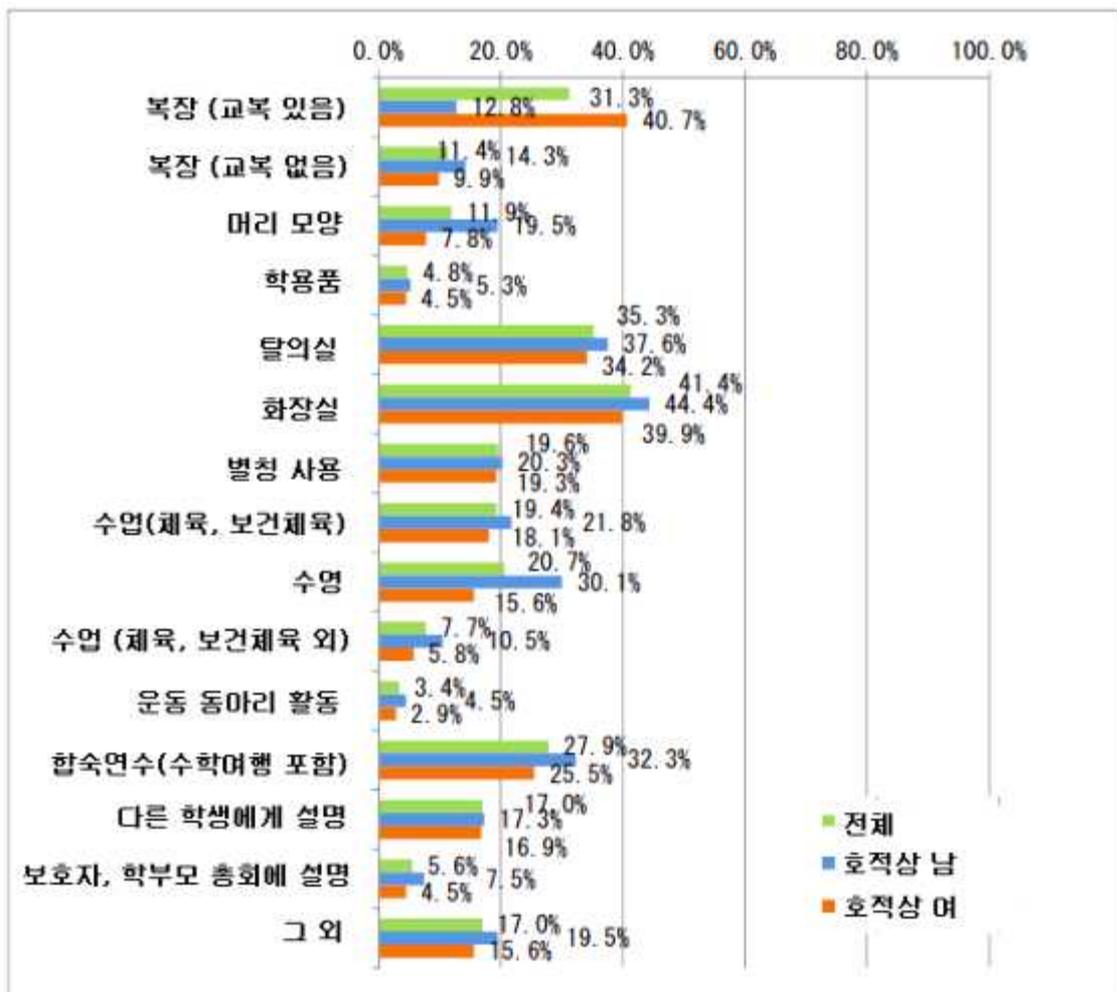


그림 1. 전체 응답자

2) 초등학교 저학년

	배려 있음	배려 없음	무응답	응답수
전체(호적상 남녀 모두)	42.3%	57.7%	0.0%	26
전체(호적상 남)	36.8%	63.2%	0.0%	19
전체(호적상 여)	57.1%	42.9%	0.3%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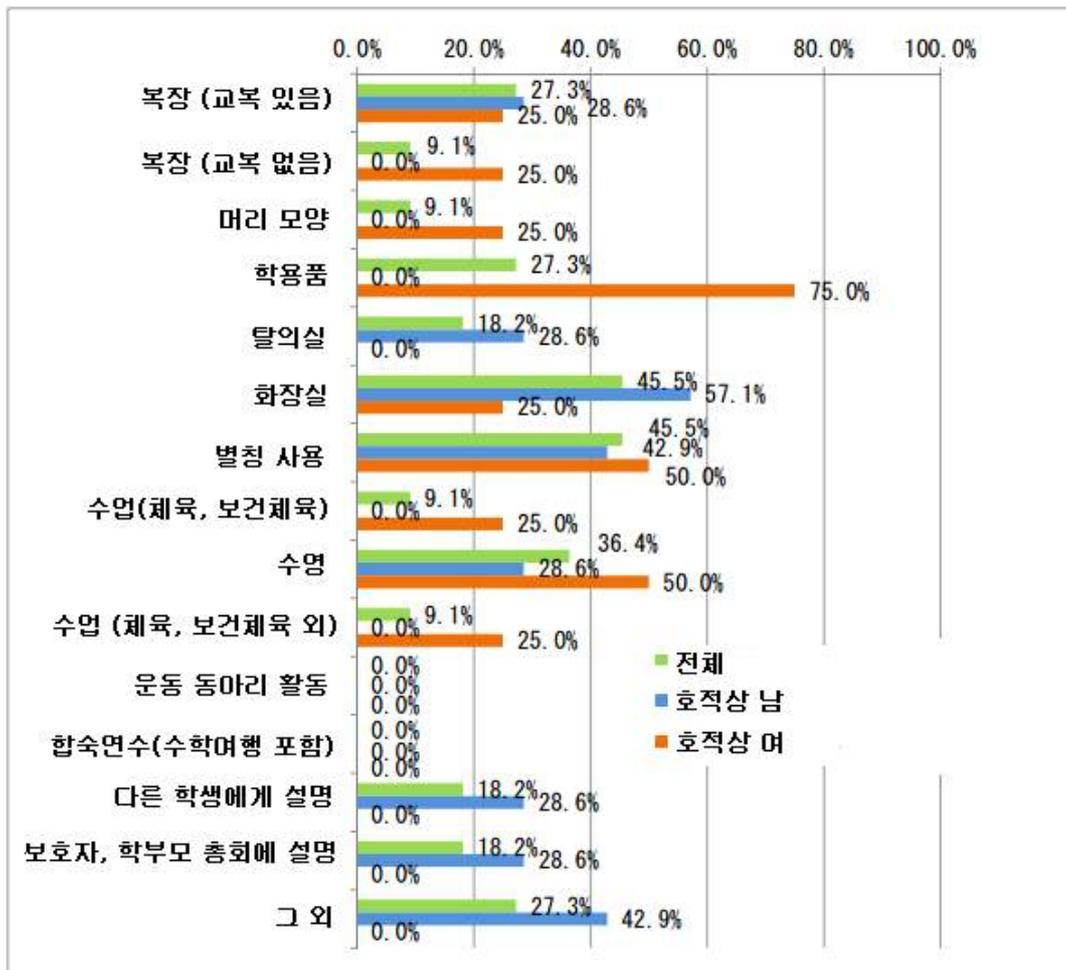


그림 2. 초등학교 저학년

3) 초등학교 중학년

	배려 있음	배려 없음	무응답	응답수
전체(호적상 남녀 모두)	51.9%	48.1%	0.0%	27
전체(호적상 남)	33.3%	66.7%	0.0%	15
전체(호적상 여)	75.0%	25.0%	0.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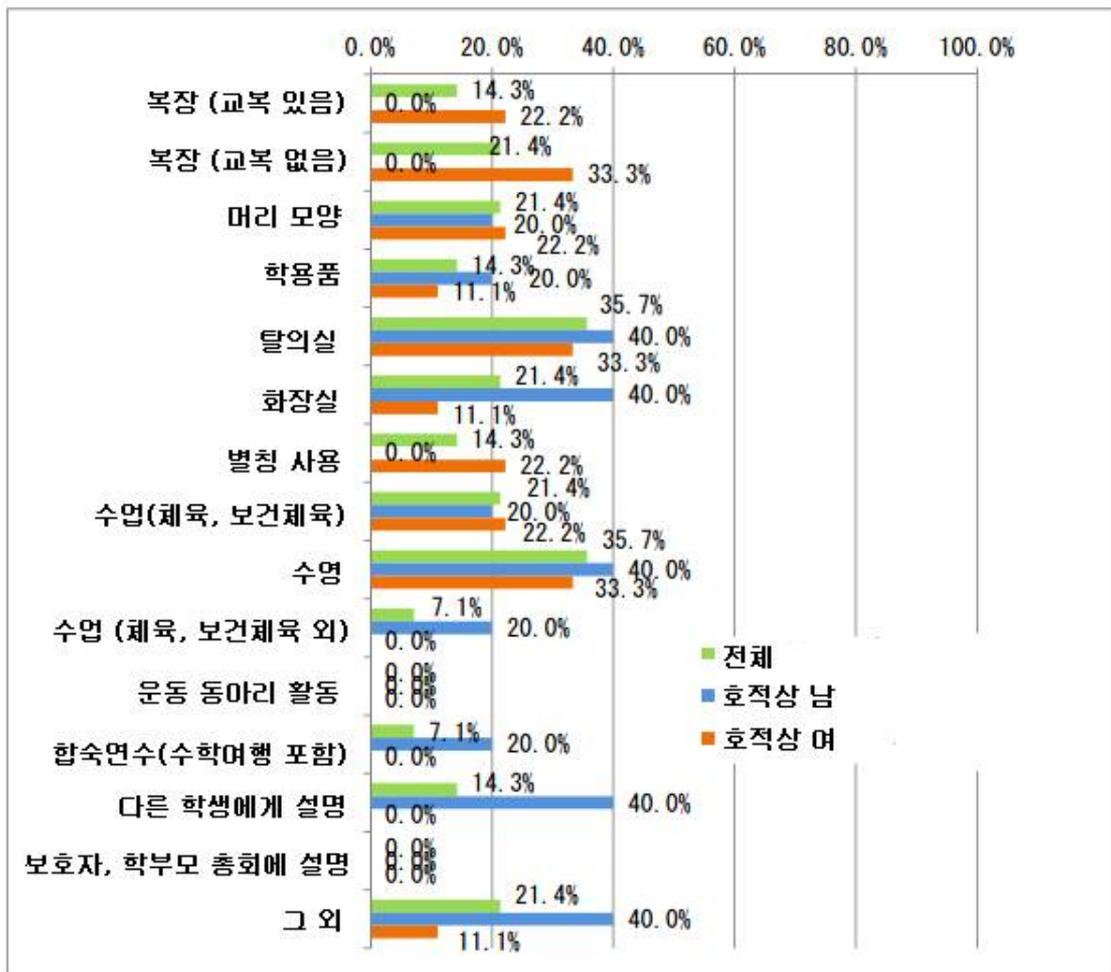


그림 3. 초등학교 중학년

4) 초등학교 고학년

	배려 있음	배려 없음	무응답	응답수
전체(호적상 남녀 모두)	82.5%	17.5%	0.0%	40
전체(호적상 남)	83.3%	16.7%	0.0%	30
전체(호적상 여)	80.0%	20.0%	0.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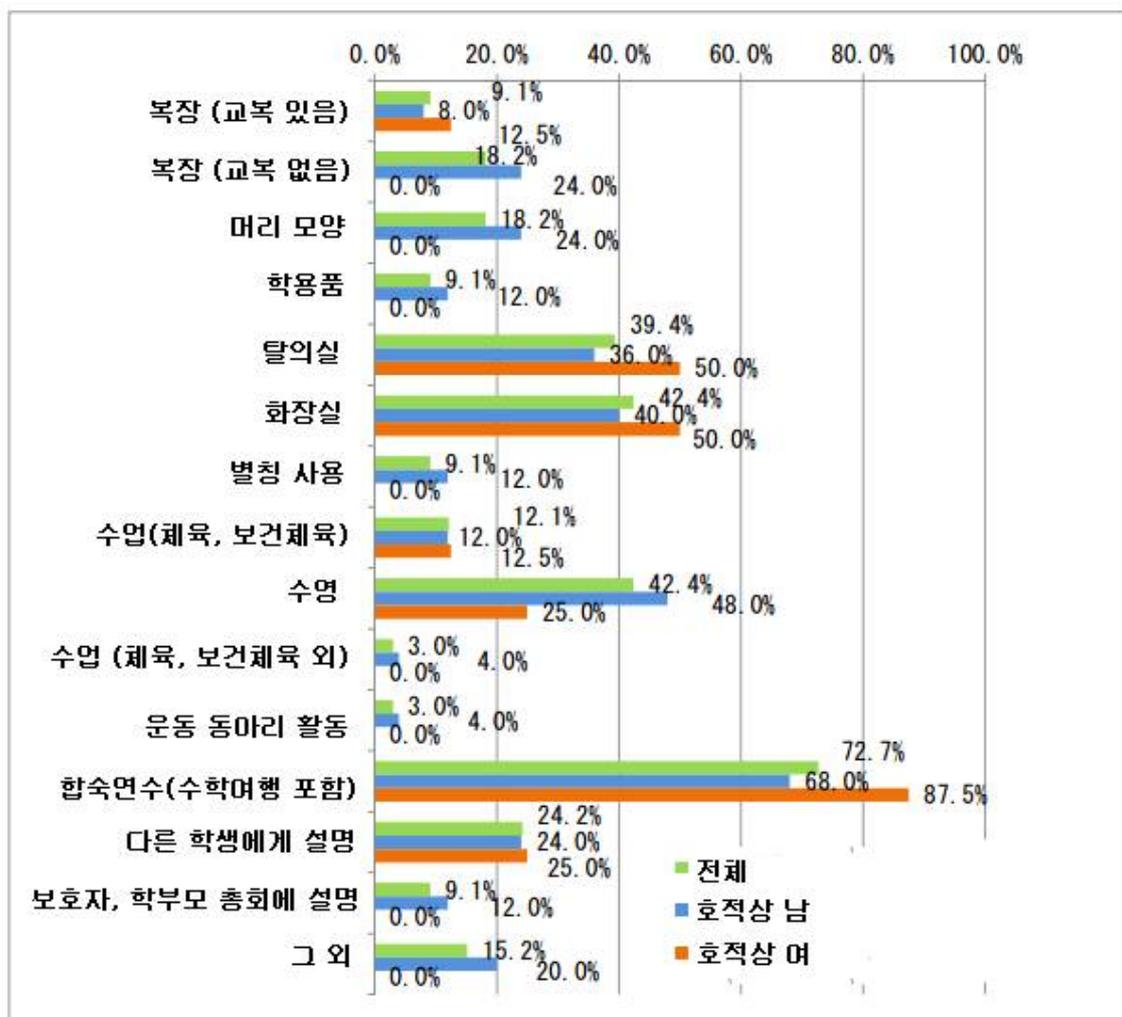


그림 4. 초등학교 고학년

6) 중학교

	배려 있음	배려 없음	무응답	응답수
전체(호적상 남녀 모두)	62.7%	37.3%	0.0%	110
전체(호적상 남)	46.9%	53.1%	0.0%	49
전체(호적상 여)	76.3%	23.7%	0.0%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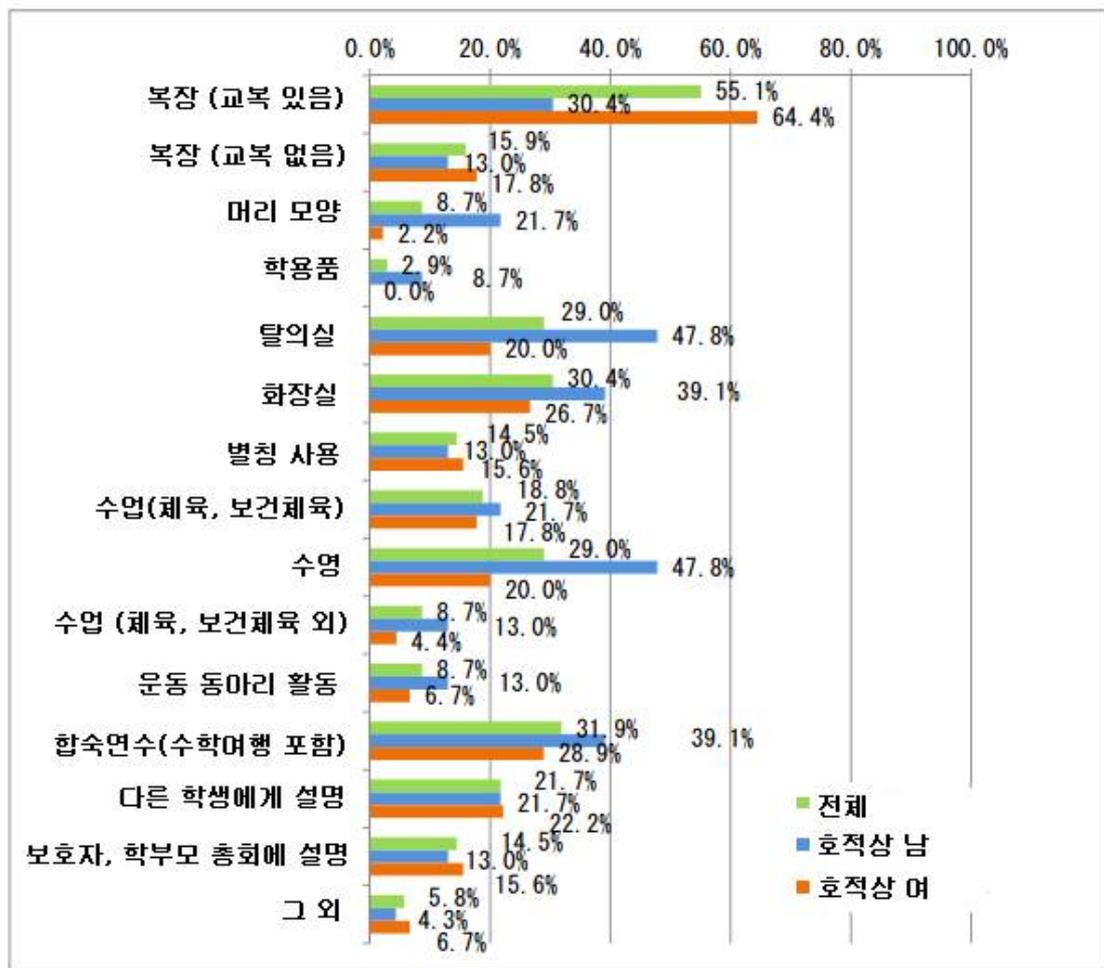


그림 5. 중학교

7) 고등학교

	배려 있음	배려 없음	무응답	응답수
전체(호적상 남녀 모두)	62.0%	37.7%	0.2%	403
전체(호적상 남)	58.9%	41.1%	0.0%	124
전체(호적상 여)	63.7%	36.0%	0.4%	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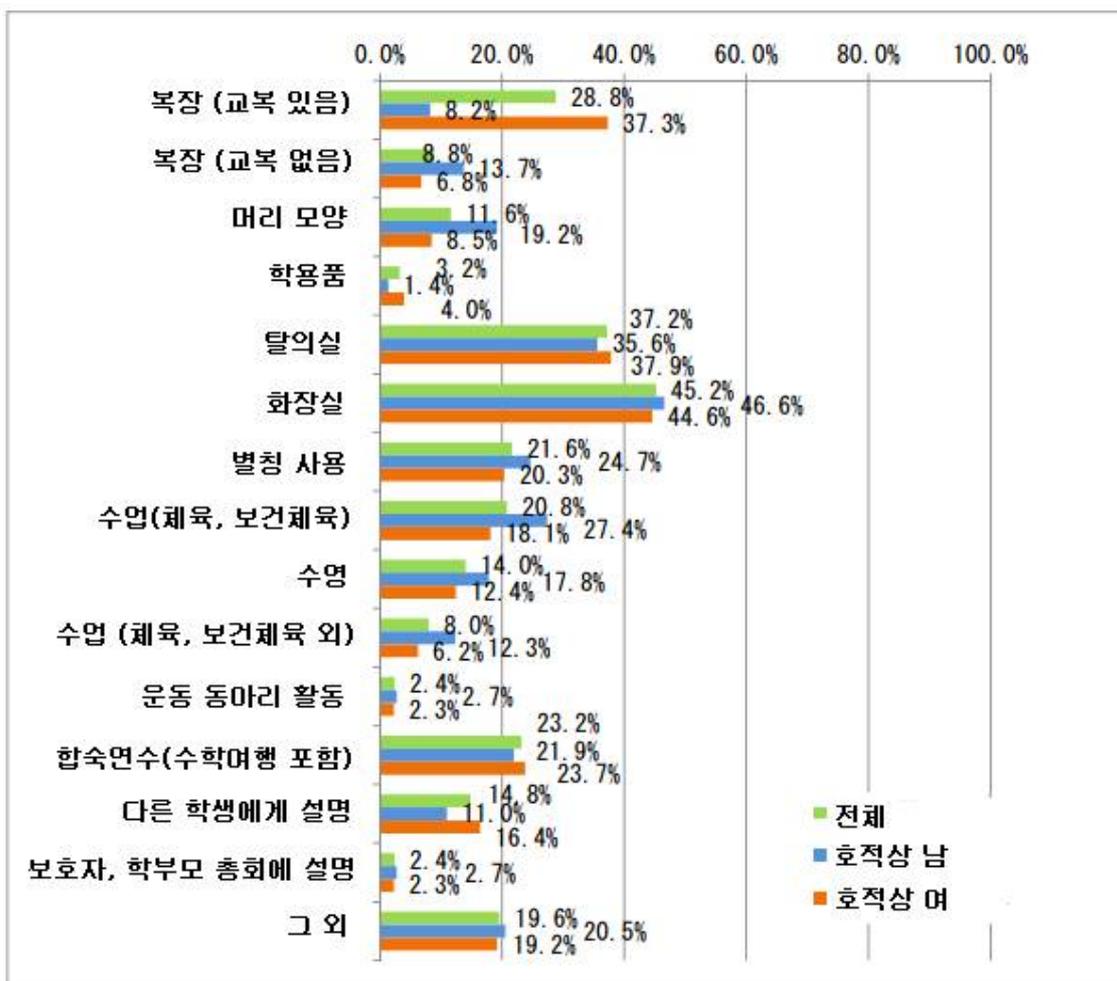


그림 6. 고등학교

[B. 가능한 범위에서 임의 응답을 요구한 항목]

5) 의료기관의 진료 유무 (응답률 95.7%)

- a) 그렇다 : 42.4% (257건)
- b) 아니다 : 36.8% (223건)
- c) 모르겠다 : 16.5% (100건)
- d) 무응답 : 4.3% (26건)

6) 성주체성장애 진단 유무 (응답률 92.1%)

- a) 있다 : 27.2% (165건)
- b) 없다 : 39.1% (237건)
- c) 모르겠다 : 25.7% (156건)
- d) 무응답 : 7.9% (48건)

7) 다른 학생이나 보호자에 대한 대처 (숨기고 있는지 여부) (응답률 89.9%)

- a) 숨기고 있다 : 43.1% (261건)
- b)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숨기고 있다 : 14.4% (87건)
- c) 숨기고 있지 않다 : 22.4% (136건)
- d) 그 외 : 10.1% (61건)
- e) 무응답 : 10.1% (61건)

8) 학교의 정책 (자유기술)

(자주 나온 내용)

- 학교 상담사가 대응하고 있다.
- 교육위원회, 관리직, 담임, 부담임, 학교상담사, 보건 교사 등의 관계자가 정보 공유, 연계를 하고 있다.
- 보건 교사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외의 내용)

- 전문의와의 상담을 제안했지만 본인이 거부했다.
- 보건 교사의 제안에 따라 전문의와의 상담은 하지 않고 있다.
- 당사자 모임, 부모 모임, 포럼 등에 본인과 교사가 같이 참가하고 있다.
- 교내에서 특별지원 위원회, 사례 회의 등을 실시하고 있다.
- 학교 외부와는 별도의 연계는 없다.

9) 현황 (자유기술)

(자주 나온 내용)

- 주위에서도 받아들여 주어 특별한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다.
- 등교를 거부한다. 양호실에 있는 경우가 많다.
- 가족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 혹은 이해는 해줘도 완전히 받아들여주지는 않는다.
- 가족에게 이해 받고 있다.

(그 외 내용)

- 완전히 자신이 원하는 성별로 생활하고 주위에서도 의심받지 않는다.
- 본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주는 친구가 있어 교우관계에 고민이 없다.
- 복장에 대해 특별한 고려를 한 후로 본인도 밝아지고 여유를 느끼게 되었다.
- 보호자로부터 상담을 받았지만 학교생활에서 배려는 원하지 않았다.
- 트랜스젠더인지 그냥 일시적인 기분인지 본인도 흔들리고 있어 성의 불일치로 고민하고 있다.
- 본인은 다른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고 생활하는 것을 원하고 보호자도 같은 의견이지만 주위의 학생은 눈치를 채고 있어 지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있다.
- 기분의 고저가 심해 자해를 하곤 한다.

10) 과제 (자유기술)

(자주 나온 내용)

- 사춘기를 맞이해 심신의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응
- 졸업 후의 진로, 취직과의 연계 방법 (고등학교)
- 전문의의 부재
- 보호자의 이해를 얻기 어려움

(그 외의 내용)

- 호르몬 요법을 혼자서 시작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본인이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주위의 학생이나 교직원의 이해 증진
- 시설 면에서 트랜스젠더를 고려한 장소나 설비 확보
- 전문기관이나 사례의 부재
- 본인만이 아니라 주위의 학생에의 고려 방법
- 교내 정책 수립
- 개별 사정이 각기 다르므로 대응방식의 매뉴얼화가 어려움
- 어디까지 배려할 것인지 고민됨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어디까지 감안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적정한지)
- 누구에게까지 알려야 하는지 고민됨

3. 개별사례

1) 초등학교 저학년, 호적상 남, 성주체성장애 진단받았음

(의료기관의 진료 : 받았음, 다른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대처 : 숨기고 있지 않음)

a) 학교의 정책

입학전에 보호자로부터 상담을 받고 주치의와 교직원이 보호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입학 시에 교육사무소로부터 사람을 초청해서 대응 방안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다. 화장실, 별칭 사용, 수영, 학부모 모임에 대한 설명 등에 있어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와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장애의 경우를 고려해 본인 및 주위 사람들이 본인만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여기지 않도록 전 교직원이 합동해서 시의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

b) 현황

여자 아이로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담임도 아이들도 다른 여자아이를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태도로 대해주고 있다.

c) 과제

아직 저학년이기에 신체적 특징이 뚜렷하지 않지만 성장함에 따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2) 초등학교 중학년, 호적상 남, 성주체성장애 진단 : 없음

(의료기관의 진료 : 없음, 다른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대처 : 다른 학생의 보호자들에게는 당사자의 부모가 알렸지만, 학생들에게는 아직 이해받기 힘들 것이라 생각해서 숨기고 있다. 학년이 올라가면 설명하는 것을 검토 중)

a) 학교의 정책

학교 상담사가 세심하게 학생의 상태를 봐주고 있다. 교직원 전원의 이해를 받고자 한다.

b) 현황

당사자의 기분을 고려하여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서 쾌적하게 지내고 있다. 다른 학생들은 일부는 눈치 채고 있지만 큰 소란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른 학생들의 보호자들 중에는 아이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c) 과제

전문기관이 적어서 진료를 받기가 힘들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판단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성장함에 따라 내적 갈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수학여행이나 운동회 등의 행사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초등학교 (중학년), 호적상 남, 성주체성 장애 진단 : 없음

(의료기관의 진료 : 없음, 다른 학생이나 보호자에 대한 대처 : 숨기고 있지 않음)

a) 학교의 정책

학교 상담사와 연계하고 있다. 교직원 모두가 이해해 주고 있다.

b) 현황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되고 싶은 건지,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

c) 과제

앞으로 고학년이 되어 사춘기에 접어들면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4) 초등학교 고학년, 호적상 남, 성주체성장애 진단 : 있음

(의료기관의 진료 : 있음, 다른 학생이나 보호자에 대한 대처 : 숨기고 있지 않음)

a) 학교 정책

의사, 전문가, 교육위원회, 진학할 중학교 등과 연계해서 수차례 사례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복장이나 머리 모양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b) 현황

본인은 여유있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보호자의 이해도도 높아서 본인에게 좋은 지원자가 되어주고 있다. 다른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대해주고 있다.

c) 과제

앞으로 사춘기에 접어들어 제 2차 성징이 시작되면 몸과 마음의 불일치로 본인이 괴로워할 것이 예상된다. 그 때 어떤 지원을 해 줘야 할지 혹은 중학교에 진학할 때 어떻게 주위의 학생들의 이해를 얻을지가 과제이다.

5) 중학교, 호적상 여, 성주체성장에 진단 : 있음

(의료기관의 진료 : 있음, 다른 학생이나 보호자에 대한 대처 : 숨기고 있지 않음)

a) 학교의 정책

입학할 즈음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고, 입학 전에 보호자 및 본인과 상담을 하면서 준비하였다. 그 후 i)입학식 당일 본인, 보호자가 반 전체에 공개 ii) 본인과 교직원이 함께 학년 모임에서 학년전체에, 전교 모임에서 전교에 공개 iii) 학부모 총회 시에 교장이 학부모 전체에게 공개했다.

또한 탈의실, 화장실, 건강검진, 수영 수업 시에 특별히 고려해서 본인이 원하는 성별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2) 현황

본인은 남자로서 학교를 다니고 다른 학생들과도 남자로서 어울리고 있다. 전교생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알린 용기에 대해서 학생들은 응원하는 분위기이고, 당사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학교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3) 과제

전교생 및 학부모들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지내고 있다.

6) 고등학교, 호적상 여, 성주체성장에 진단 : 없음

(의료기관의 진료 : 모르겠음, 다른 학생이나 보호자에 대한 대처 : 숨기고 있음)

a) 학교의 정책

본인의 고민과 불안을 보건 교사에게 상담하였고 보건 교사는 이를 관계 직원에게 보고하여 학급담임과 같이 대응해 나가고 있다.

b) 현황

해당 학교는 여학생에게도 바지교복이 허용되기 때문에 항상 바지 교복을 입고 다니고 있고 머리카락, 말투, 행동도 상당히 남성스럽게 하고 있다. 본인 말로는 사이가 좋은 남학생들이 몇 명 있어서 그 안에서는 이해받고 있다고 한다. 당사자는 조기에 상담, 진료, 치료를 받아서 남성으로서 앞으로도 생활해 나가기를 원하지만 보호자의 이해, 협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c) 과제

본인이 남자로서 생활하고 싶다는 소망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보건 교사

의 입장은 그것이 정말로 [성주체성장애]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감정상의 흔들림인지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 진단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전문 기관이 적기 때문에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의료적 조치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지만 쉽게 의료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학생의 심신을 잘 지켜보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7) 고등학교, 호적상 여, 성주체성장애진단 : 없음

(의료기관의 진료 : 없음, 다른 학생이나 보호자에 대한 대처 : 숨기고 있지 않음)

a) 학교의 정책

일상적 학교 생활이나 수학여행등에서 본인이 배려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없다. 상담은 수시로 보건 교사에게 받고 있다.

b) 현황

동성 친구도 많이 있고 교내에서 험담을 듣거나 하는 일도 없어 보인다. 본인은 숨길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티를 내지도 않고 생활하고 있다.

c) 과제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굳이 배려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불편한 시선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이다.

8) 고등학교, 호적상 남, 성주체성장애 진단 : 있음

(의료기관의 진료 : 있음, 다른 학생이나 보호자에의 대처 : 숨기고 있지 않음)

a) 학교의 정책

관리직, 보건 교사, 학년 주임, 체육교사, 담임이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특별한 배려는 하고 있지 않다.

b) 현황

출석 상황은 양호, 클래스 내에서 특별하게 다뤄지고 있지는 않고 주위 학생들도 개성으로서 받아들여주고 있는 듯하다.

c) 과제

교직원 중에서도 편견을 갖고 부주의한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수 등을 할 필요가 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은 다른 학생과 시간을 달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면이나 행사 등에서의 배려는 하고 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할 때도 있어 보호자와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